

2018년 국가직 7급 한국사 정답해설(8월 18일 시행) - 나책형

문 1. ㉠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주나라가 쇠약해지자 연나라가 스스로 왕을 칭하고 동쪽으로 침략하려 하였다.
㉠의 후(侯) 역시 스스로 왕을 칭하고 군사를 일으켜 연나라를 공격하려 하였는데, 대부인 예(禮)가 간하여 중지하였다.

- ① 전연의 공격을 받아 심한 타격을 받았다.
- ②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열었다.
- ③ 박·석·김씨가 왕위를 교대로 계승하였다.
- ④ 8조의 법을 제정하였는데 세 조항만 전해진다.

정답 : ④

제시된 사료의 ㉠은 고조선이다. 고조선은 기원전 4세기경 조선왕(朝鮮王)이라 칭하며 연나라와 요서 지방을 경계로 대립하였다.

④ 고조선은 보복법적 관습법으로, 농경 사회의 모습과 사유 재산제의 존재, 계급 사회 등의 특징을 보여주는 8조법을 제정하였다. 『한서』 지리지에는 고조선의 관습법인 8조법 중 3조목이 전하고 있다.

① 고구려는 342년 고국원왕 대 선비족이 세운 국가인 전연의 모용황의 침입으로 수도가 함락되기도 하였고, 346년 부여도 모용황의 침입을 받아 국왕 이하 5만여 명의 백성이 포로로 잡혀가는 타격을 받았다. ② 동에는 매년 10월 무천이라는 제천행사를 지냈다. ③ 신라 이사금 시기에는 박·석·김의 3집단이 연합하여 세 집단에서 교대로 대표를 선출하였다.

문 2. 조선 초기 국왕의 업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하고 한성부로 이름을 바꾸었다.
- ② 태종은 창덕궁과 창경궁을 새로 건설하였다.
- ③ 세종은 사가독서제를 실시하여 학문 활동을 장려하였다.
- ④ 세조는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불경을 번역하고 간행하였다.

정답 : ②

② 창덕궁은 태종이 한양으로 환도할 것을 결정한 직후인 1404년 향교동 응봉 자락에 터를 정함으로써 건립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창경궁은 성종이 당시 세 명의 대비를 위한 공간으로, 세종이 상왕으로 물러난 태종을 위해 세운 수강궁을 확장·보완한 것이다.

① 1394년 태조는 한양으로 천도한 뒤 한양부를 한성부로 개칭하였고 정도전으로 하여금 한양을 구획하고 명칭을 정하도록 하였다. ③ 사가독서제는 왕이 문신 중에서 유능한 자를 선발하여 일정 기간 동안 휴가를 주고 독서하도록 하는 제도로, 세종 대에 문장이 뛰어난 집현전 관리를 대상으로 시행한 것이다. ④ 세조 5년에는 세종이 지은 『월인천강지곡』과

세조가 『석보상절』을 개고(改稿)해 합편한 『월인석보』를 간행하였고, 간경도감을 설치하여 많은 불교전적을 우리글로 번역하여 간행토록 하였다.

문 3. 군국기무처가 폐지되고 시행된 제2차 갑오개혁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 ① 교육입국 조서를 반포하였다.
- ② 종래의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하였다.
- ③ 경무청을 신설하여 경찰 제도를 도입하였다.
- ④ 궁내부를 신설하여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하였다.

정답 : ①

- ① 고종의 교육입국 조서는 제2차 갑오개혁 시기인 1895년 2월에 반포되었다. 교육입국 조서에서 고종은 지·덕·체에 입각한 근대 국민 교육을 강조하였고, 이에 따라 이후 한성사범학교를 비롯한 사범학교, 소학교, 외국인학교, 기술학교 등 각종 학교가 설립되었다.
- ② 6조를 8아문으로 개편한 것, ③ 경무청 신설, ④ 궁내부를 세워 왕실과 정부 사무를 분리한 것은 제1차 갑오개혁 때의 내용이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문 4. (가)와 (나)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 |
|--|
| (가) 남북한은 자주·평화·민족적 대단결의 통일 원칙을 명시한 7·4 남북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
| (나)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같은 해에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남북 기본 합의서)’를 채택하였다. |

- ① 4·19 혁명 발발
- ② 금융 실명제 실시
- ③ 5·18 민주화 운동 발발
- ④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 시작

정답 : ③

(가)는 1972년에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 (나)는 1991년에 발표된 남북 기본 합의서이다.

- ③ 1980년 5·18 민주화 운동은 신군부 세력의 비상계엄 확대에 의해 일어났다.
- ① 1960년 4·19 혁명은 3·15 부정선거로 인한 마산 시위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확대되었으며, 그 결과 부통령에 당선된 이기붕이 사퇴하고 이승만이 하야하였다. ② 김영삼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고 금융 실명제를 의무화하였다(1993). ④ 제2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은 1967년에 시작되어 1971년까지 진행되었다.

문 5. 1940년대 대학민국 임시 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의열 활동을 위해 한인 애국단을 결성하였다.
- ㄴ. 삼균주의를 바탕으로 한 건국 강령을 발표하였다.
- ㄷ. 대일 선전 포고를 하고 연합군과 합동 작전을 전개하였다.
- ㄹ. 정부의 형태가 대통령제에서 국무령 중심의 의원내각제로 바뀌었다.

- ① $\neg$, $\perp$
② $\neg$, $\exists$
③ $\perp$, $\top$
④ $\top$, $\exists$

정답 : ③

나. 대한민국 임시 정부는 1941년 대한민국 건국 강령을 발표하여 정치·경제·교육의 균등을 지향한 삼균주의를 이념으로 표방하였다. 다. 1940년 대한민국 임시 정부가 창설한 한국광복군은 1941년 대일 선전 포고를 발표하였으며, 중국 주둔 미국 전략 정보국(OSS)과 합작하여 국내 진공 작전을 계획하기도 하였다.

7. 1931년 김구의 주도로 암살 파괴 공작을 위한 한인 애국단이 조직되었고, 이봉창과 윤봉길이 한인 애국단에서 의열 투쟁을 전개하였다. ㄹ. 국무령 중심의 내각 책임제는 제2차 개헌(1925)에 의거한 정책이다.

문 6. 1880년대 개화 정책과 관련된 사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 ㄱ. 교정청은 개화 정책을 총괄하는 기구였다.
 ㄴ. 청에 파견된 영선사 김윤식 일행은 무기 제조법을 배웠다.
 ㄷ. 미국에 파견된 보빙사는 근대 시설을 시찰하고 대통령을 접견하였다.
 ㄹ. 김홍집은 조사 시찰단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왔다.

- ① $\neg, \perp$ ② $\neg, \sqsubset$
③ $\perp, \sqsubset$ ④ $\sqsubset, \sqsubset$

정답 : ③

나. 1881년에 영선사로 청나라 텐진에 파견된 김윤식은 조선인 학생들을 텐진 기기창에 배치해서 무기 제조에 관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였다. 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 이후 미국에 파견된 사절단인 보빙사는 1883년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워싱턴을 거쳐 뉴욕을 방문하고 있던 미국 대통령 아서를 접견한 후 국서와 신임장을 제출하였다.

7. 교정청의 설치는 1894년 6월이다. 전주 화약 체결 이후 정부에서는 동학 농민군의 요구를 수용하고 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하여 교정청을 수립하고 자주적 개혁을 추진하려 하였다. ㄹ. 『조선책략』을 가지고 돌아온 김홍집은 조사시찰단이 아닌 제2차 수신사로 파견되었다.

문 7.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예로부터 나라의 역사가 중기에 이르면 인심이 반드시 편안만 탐해 나라가 점점 쇠퇴한다. 그때 현명한 임금의 임금이 떨어지고 일어나 천명을 연속시켜야만 국운이 영원할 수 있다. 우리나라도 200여 년을 지내 지금 중쇠(中衰)에 이미 이르렀으니, 바로 천명을 연속시킬 때이다.

- ① 경과 의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창도하였다.
- ② 왕이 지켜야 할 왕도정치 규범을 체계화한 『성학십도』를 지었다.
- ③ 삼강오륜의 윤리를 설명하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를 적은 『동몽선습』을 지었다.
- ④ 우리 역사에서 기자의 행적을 주목하고 그 전통을 계승하기 위해 『기자실기』를 지었다.

정답 : ④

제시된 사료는 율곡 이이가 선조와의 경연에서 주장한 내용이다. 율곡은 자신이 살고 있는 당시의 시대상황을 중쇠기(中衰期)로 규정하였다. 조선 건국이 200년이 되었으니 중쇠기에 접어들었고, 여기에 권신들 사이의 혼란까지 있어 기가 쇠하였다는 것이다. 율곡은 이러한 중쇠기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회 경장론을 제시하고 군주가 현명해야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④ 이이는 『기자실기』라는 기자의 전기를 통해 기자가 우리 민족을 교화하여 중국인과 같은 문화수준으로 향상시킨 공로를 높이 존송하였다. 이는 또한 당시 일반적으로 고조되어 가던 기사에 대한 존송을 반영한 것이다.

- ① 경(敬)과 의(義)를 근본으로 하는 실천적 성리학풍을 강조한 인물은 남명 조식이다.
- ② 이황은 『성학십도』에서 군주 스스로가 성학을 따라 성학군주가 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 ③ 『동몽선습』은 박세무가 저술한 서당 교재이다. 율곡 이이는 성리학 초심자를 가르치기 위한 목적으로 『격몽요결』을 저술하였다.

문 8.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조가 아뢰기를, “㉠자의 왕대비께서 선왕의 상에 입어야 할 복제를 결정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은 삼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기년복(期年服)을 입어야 한다고 하니 어떻게 결정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라고 하였다. 이에 국왕은 여러 대신에게 의견을 물은 다음 ㉣기년복으로 결정하였다.

- 『조선왕조실록』 -

- ① ㉠ - 인조의 계비 조대비를 가리킨다.
- ② ㉡ - 윤휴는 왕통을 이었으면 적장자로 보아야 하므로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③ ㉢ - 송시열은 ‘체이부정(體而不正)’을 내세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④ ㉣ -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에 따라 기년복으로 결정되었다.

정답 :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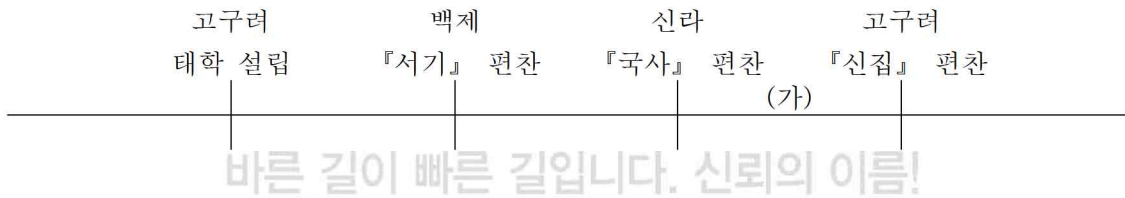
제시된 사료는 효종 사후 자의대비의 복상에 대해 논의한 기해예송(1차 예송)과 관련된 것이다.

④ 예송 논쟁은 『국조오례의』의 상복 규정 내용이 미비하여 일어난 것으로, 기해예송 당시 서인은 『주자가례』에 따라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당시 조정은 『경국대전』에서 장자와 차자 모두 기년복을 입는다는 규정에 따라 조대비는 1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① 예송 논쟁은 효종과 효종비 사후 인조의 계비인 자의대비 조씨의 복제에 관한 논의이다.

② 윤희, 허목, 허적 등의 남인 세력은 효종이 비록 둘째 아들이기는 하지만 장자로 보아야 하며, 이에 3년복을 입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③ 송시열, 송준길 등의 서인 세력은 3년복을 입을 수 없는 사종지설에 따라 효종이 둘째 아들로 통을 이은 경우, 곧 ‘체이부정’에 해당하며 서자(庶子)일 뿐이니 3년복이 아닌 기년복을 입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문 9. (가)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 ① 고구려 장수왕이 백제 한성을 함락하였다.
- ② 금관가야가 가야 연맹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 ③ 신라에서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 ④ 백제가 노리사치계를 보내 일본에 불상과 불경을 전하였다.

정답 : ④

제시된 (가)는 거칠부가 『국사』를 편찬하는 545년부터 이문진이 『신집』을 편찬하는 600년까지의 시기이다.

④ 백제 성왕 때(552) 노리사치계가 왜에 불경과 불상을 전달하는 등 백제는 왜에 불교를 비롯한 선진 문화를 전해 주었다.

① 고구려 장수왕이 남하 정책을 실시하여 475년에 한성을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백제 개로왕을 전사시켰다. ② 399년 신라에 침입한 왜구 격퇴 과정에서 고구려가 왜구를 추격(400)하면서 낙동강 하류의 가야 지방까지 내려와 큰 타격을 입혔다. 이에 금관가야 중심의 전기가야가 그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었다. ③ 신라 법흥왕(514~540) 때 ‘건원’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문 10. (가)~(라) 승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참회법과 미타 정토 신앙을 실천행으로 강조하는 결사 운동을 전개하였다.
 (나) 송광산 길상사를 근거지로 새로운 선풍(禪風) 진작에 힘을 기울여 개혁적인 승려들과 지방민의 호응을 얻었다.
 (다) 북악과 중심으로 남악파를 통합하여 화엄교단을 정리하고 당시 불교계를 주도하였다.
 (라) 고려와 송, 거란 등의 불교 저술을 망라한 ‘신편제종교장총록’을 작성하고 속장경을 간행하였다.

- ① (가) - 중국 화엄종의 방계(傍系)인 이통현의 화엄사상에서 많은 영향을 받았다.
 ② (나) - 선을 체(體)로 삼고 교를 용(用)으로 삼아 선과 교의 합일점을 구하였다.
 ③ (다) - 화엄사상의 입장에서 법상종 세력을 흡수하여 성상윤희 사상을 표방하였다.
 ④ (라) - (다)의 화엄학이 실천의 문제를 떠나 지나치게 관념화되어 있음을 비판하였다.

정답 : ①

(가)는 요세, (나)는 지눌, (다)는 균여, (라)는 의천에 대한 내용이다.

① 지눌에 대한 내용이다. 이통현은 중국 화엄종에서 방계로 여겨지는 인물로, 신역 『화엄경』에 대한 주석서를 처음으로 완성했을 뿐 아니라 그 만의 독특한 화엄학을 제시하였다. 이통현의 사상은 고려의 의천, 지눌에게도 영향을 주었는데, 지눌은 이통현의 『신화엄성론』을 보고 선과 교가 다르지 않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지눌은 이통현의 화엄사상에 근거하여 화엄적 돈오의 길을 밝힌 『원돈성불론』을 저술하였고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을 세웠다.

② 지눌은 불자의 수행법으로 돈오점수와 정혜쌍수를 주장하여, 선(禪)으로써 체(體)를 삼고 교(敎)로써 용(用)을 삼아 선종과 교종의 합일점을 추구하였으며, 종래의 구산선문을 조계종에 통합하는 업적을 이루었다. ③ 신라 말에 화엄종은 해인사에 주석한 희랑과 관혜가 서로 대립하면서 각각 북악과 남악으로 나뉘어 다투었는데, 북악의 범손인 균여가 남·북악파의 교리를 통합하여 융회불교인 성상윤희 사상을 성립시켰다. ④ 의천은 균여의 사상이 관념화되어 있다고 하여 배척하였다. 이에 따라 의천은 『신편제종교장총록』에 균여의 저술을 제외하고, 자신의 제자들에게도 읽지 못하게 하였다.

문 11. 다음과 같은 시기에 재위하였던 국왕 대의 사실로 옳은 것은?

성균관을 다시 짓고 이색을 판계성부사 겸 성균관 대사성으로 삼았다. …(중략)… 이색이 다시 학칙을 정하고 매일 명륜당에 앉아서 경전을 나누어 수업하였는데, 강의를 마치면 함께 논쟁하느라 지루함을 잊었다. 이에 학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하였고 서로 함께 눈으로 보고 느끼게 되니, 정주성리학이 비로소 흥기하게 되었다.

- 『고려사』 -

- ① 정동행성을 설치하였다.
 ② 정치도감을 설치하였다.

- ③ 전민변정도감을 설치하였다.
④ 각염제를 처음으로 시행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고려 공민왕 대의 성균관 중영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공민왕은 성균관의 중영을 명하면서 전국의 유관이 품계에 따라 포를 내어 그 비용을 충당하도록 하였으며, 성균관의 학생 수를 증원하고 이색을 대사성에 발탁하는 한편, ‘경술지사(經術之士)’로 지목되고 있던 김구용·정몽주·박상충·박의중·이승인 등을 모두 학관에 임명하였다. 이러한 개혁은 신진사대부가 세력을 결집하고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③ 공민왕 때 국가 재정 확보와 민생 안정, 권문세족의 경제 기반을 약화시킬 목적에서 전 민변정도감을 설치하고 섭정대사로 신돈을 등용하여, 불법적으로 겸병한 권문세족의 토지를 원주인에게 돌려주고 억울하게 노비 된 자를 풀어주도록 하였다.

① 정동행성은 고려 충렬왕 대 원나라가 일본 원정을 위해 설치한 기구이다. ② 충목왕은 개혁 기구로서 정치도감을 설치하고 운영을 담당했던 관리들은 대부분 과거에 합격한 인물들을 임명하였다. 충목왕은 이를 통해 토지 겸병, 노비, 피역(避役) 등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기황후(奇皇后)의 일족인 기삼만(奇三萬) 등의 반발로 인해 실패하고 말았다. ④ 각염(榷鹽)은 1288년(충렬왕 14) 3월 충렬왕이 여러 도에 사신을 보내 소금을 전매하였다는 기록에서 그 시작을 찾을 수 있지만, 국가 재정 확충을 목적으로 하는 본격적인 각염제의 실시와 정비는 충선왕 대의 사실이다.

문 12. 다음과 같이 주장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오호라. 작년 10월에 저들이 한 행위는 만고에 일찍이 없던 일로서, 한 조각의 종이에 강제로 조인하게 하여 5백 년 전해오던 종묘사직이 마침내 하룻밤 사이에 망했으니 ... (중략)... 우리 의병군사의 올바른을 믿고, 적의 강대함을 두려워하지 말자. 이에 격문을 돌리니 다 함께 일어나라.

〈보기〉

- ㄱ. 의병을 이끌고 홍주성을 점령하였다.
- ㄴ. 대마도(쓰시마)로 압송된 후 순국하였다.
- ㄷ. 왜양일체론을 주장하며 개항에 반대하였다.
- ㄹ. 13도 창의군을 이끌고 서울진공작전을 지휘하였다.

제시된 자료는 1905년 을사조약의 체결에 반발하여 제기된 최익현의 ‘의병 격문’이다.

나. 최익현은 을사조약이 체결된 직후 제자들을 모아 전라북도 태인에서 봉기하여 정읍·순창 일대를 장악하였다. 이때 관군과 대치하였을 때, 최익현은 관군에게 의병에 합류할 것을 간곡히 권하였다. 그러나 관군의 공격으로 의병 부대가 와해되었고, 최익현은 체포되어 쓰

시마 섬에 유배된 후, 결국 그곳에서 숨을 거두었다. ㄷ. 1876년 강화도 조약(조·일 수호조규) 체결 직전 최익현은 ‘일본이 과거의 일본이 아니라 서양의 앞잡이이므로 서양이 곧 일본이요, 일본이 곧 서양’이라는 왜양일체론에 입각하여 조약 체결에 반대하였다.

ㄱ. 민중식은 문과에 급제한 전직 관리(참판) 출신으로 1905년 을사조약이 체결되자 충남 정산에서 의병을 일으켰고 이듬해 홍주성까지 점령하였다. ㄴ. 이인영·허위를 중심으로 1만여 명의 연합 의병 부대인 13도 창의군이 결성되었고 서울 진공을 계획하였다(1907. 12). 양주에서 시작된 서울 진공 작전(1908. 1)은 허위의 선발대 300명이 동대문 밖 서울 근교에서 일본군에 패배하였고, 각 의병부대 간의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문 13. 다음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백제역사유적지구 문화유산 중 부여군에 속한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정림사지	ㄴ. 공산성
ㄷ. 부소산성과 관북리 유적	ㄹ. 송산리 고분군

① ㄱ, ㄷ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ㄷ, ㄹ

바른 길이 바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13. 정답 : ①

ㄱ. 부여 정림사지는 사비 시대 수도의 가장 중심에 위치해 있던 사찰로 현재 내부에는 국보 제9호인 정림사지 5층 석탑이 위치하고 있다. ㄷ. 부여 관북리 유적지는 사비 시대 백제의 왕성으로 추정되는 곳으로 대형 건물지와 함께 가장 위계가 높은 관청에 사용한 ‘수부(首府)명’ 기와, 대형 석조, 당나라 장군 유인원의 행적을 기념한 비가 발견되었다. 부여 부소산성은 사비 시대 왕궁의 배후산성으로 웅진 시대부터 축조되었으며 백제부터 조선에 이르기까지 장기간 군사적 거점으로 사용되었다.

ㄴ. 공주 공산성은 웅진 시기 백제의 왕성으로 토성과 석성으로 구분되며 석성의 대부분은 조선 시대에 쌓은 것이나 외성은 백제 때 쌓은 것으로 원형이 잘 보존되어 있다. ㄹ. 공주 송산리 고분군은 웅진 시기 백제 왕실의 능묘군으로 무령왕릉을 포함한 벽돌무덤(전축분)과 굴식 돌방무덤(횡혈식석실분)이 위치하고 있다.

문 14. 밑줄 친 ‘그’의 행적으로 옳은 것은?

왕이 수도(금성)에 성곽을 쌓으려고 문의하니 <u>그</u>가 말하기를, “비록 초야에 살더라도 정도(正道)만 행하면 복업(福業)이 오래 갈 것이요, 만일 그렇지 못하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성을 쌓을지라도 아무 이익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왕은 이에 성 쌓는 일을 그만두었다. - 『삼국사기』 -
--

① 일심사상을 바탕으로 화쟁사상을 주장하였다.

- ② 당에서 유학하고 돌아와 부석사를 창건하였다.
- ③ 당에 들어가 유식론을 독자적으로 발전시켰다.
- ④ 가지산파를 개창하면서 선종을 보급하기 시작하였다.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문무왕이 성(城)을 쌓는 공사를 시행하려 할 때 의상이 ‘민심(民心)의 성(城)’을 쌓을 것을 강조하면서 만류하는 내용이다.

② 의상은 당나라에서 중국 화엄종의 제2조인 지엄(智儼)에게 화엄학을 배웠으며, 함께 수학한 당나라 승려 법장(法藏)의 존경을 받았다. 그 뒤 귀국하여 낙산사와 부석사를 세우고, 화엄종의 교리를 전파하면서 제자를 양성하였다.

① 원효는 모든 것이 한 마음에서 나온다는 일심 사상을 바탕으로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의식을 극복하려는 『십문화쟁론』을 통해 화쟁 사상을 제시하였다.

③ 원측에 대한 내용이다. 원측은 당나라 현장의 제자로서 유식 불교를 깨닫고 당에 있는 서명사에서 자기 학설을 강의하였다. ④ 우리나라에 최초로 중국의 남종선을 전한 도의에 대한 내용이다. 도의는 설악산 진전사에서 40년 동안 수도하다가 제자 염거(廉居)에게 남종선을 전하고 죽었다. 염거의 제자 체징(體澄)은 전라남도 장흥의 가지산에 가지산파(迦智山派)를 세워 크게 선종을 떨쳤다. 그리고 도의를 제1세, 염거를 제2세, 자신을 제3세라고 하여 도의를 가지산파의 개산조로 삼았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문 15. 다음 풍속이 행해진 나라의 중심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였던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은?

이곳 사람들은 시체를 가매장했다가 썩은 뒤에 다시 뼈만 추려서 큰 목곽에 넣는다. 가족들의 시신도 모두 여기에 합장했으며, 죽은 사람의 모습을 닮은 인형을 만들어 목곽 옆에 두었다.

- 『삼국지』 -

- ① 창녕비
- ② 황초령비
- ③ 사택지적비
- ④ 충주 고구려비

정답 : ②

제시된 자료는 옥저의 골장제 풍습에 대한 내용이다. 『삼국지』 동이전에 따르면 옥저는 큰 바닷가, 즉 동해안을 중심으로 북쪽으로 읍루(挾婁)와 부여(夫餘), 남쪽으로 예맥(濊貊)과 접하면서 남북으로 길게 펼쳐져 있었으며 오늘날의 함경남도 함흥 지역으로 비정하고 있다.

② 김정희에 의해 진흥왕 순수비임이 입증된 황초령비는 현재의 함경남도 함주군 하기천면 진흥리에서 발견되었는데, 1852년(철종 3년)에 당시 함경도관찰사 윤정현이 비를 보호하기 위해 황초령 정상의 원 위치에서 고개 남쪽인 중령진 부근, 즉 하기천면 진흥리로 옮겨 비각(碑閣)을 세운 것이다.

① 장녕 진흥왕 적경비는 진흥왕이 비화가야를 차지하고 장녕에 행차하면서 그것을 기념한 비석이다. ③ 백제 말 고위 귀족인 사택지적이 만든 비인 '사택지적비'는 백제의 마지막 수도인 충남 부여에서 발견되었다. ④ 충주 고구려비는 충청북도 충주시 가금면 용전리 입석(立石) 마을에 세워져 있는 고구려 시대의 비석이다. 비의 공식 명칭은 충주 고구려비이지만 충주의 옛 지명에서 비롯된 증원 고구려비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문 16. 밑줄 친 '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독립신문 발간에 관여했던 그는 독립신문사 안에 '국문동식회(國文同式會)'를 조직했으며, 1897년 4월에 '국문론'이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의 문장들이 한문에 토를 다는 형식에 그치고 있다면서 실제로 말하는 대로 글을 쓰는 '언문일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① 우리말 큰사전의 편찬을 주도하였다.
- ② 문법 서적인 『국어문법』을 저술하였다.
- ③ 조선어 연구회를 주도적으로 조직하였다.
- ④ 한글 맞춤법 통일안을 만들어 발표하였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그'는 주시경(1876~1914)이다. 『독립신문』의 국문판 조필(助筆)로서 국문판 편집·제작을 담당했던 주시경은 1896년 독립신문사 안에다 국문동식회를 조직하여 한글을 연구하면서, 한글을 전용하고 맞춤법을 제정할 것을 주장하는 등 실제적 측면에서 국어 연구를 본격화하였다.

② 주시경은 『대한국어문법』, 『국어문전음학』, 『국어문법』 등을 저술하여 국어·국문운동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① 해방 후 석방된 조선어 학회 회원들은 조선어 학회를 재건하고, 한글날 행사를 부활시켰다. 그리고 일제의 탄압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한글 사전 편찬은 1945년 10월 서울역 창고에서 일제에 압수되었던 사전 원고를 되찾으며 다시 추진되었다. 조선어 학회(이후 한글 학회로 개칭)는 1947년 한글날을 기해 『조선말 큰사전(우리말 큰사전)』 1권을 간행하였으며, 이후 1957년 6권 발간을 마지막으로 한글 사전 편찬을 마무리하였다. ③ 1921년 임경재, 최두선, 장지영 등이 모여 조선어 연구회를 결성하였다. ④ 한글맞춤법 통일안(1933)은 조선어 학회가 제정·공표하였다. 원안 작성에는 이극로, 이운재, 이희승, 최현배 등 12명이 참여하였고, 이후 김선기, 이갑 등 6명이 증원되어 최종안을 발표하였다.

문 17. 밑줄 친 '이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930년대 일제의 중국 침략이 본격화되자, 중국 본토에서 활동하던 독립운동 단체들은 좌우의 대립을 지양하고 민족 연합전선을 형성하기 위해 상하이에서 ‘한국대일전선통일 동맹’을 결성하고 민족 유일당 건설을 제창하였다. 이에 여러 단체의 인사들이 난징에서 회의를 열고 이 단체를 창건하였다. 이는 단순한 여러 단체의 동맹이 아니라 단일 정당을 형성한 것이다.

- ① 창설 당시 김구는 참여하지 않았다.
- ② 동북 항일 연군을 산하의 군사조직으로 두었다.
- ③ 지청천, 조소앙의 독주로 김원봉이 탈퇴하였다.
- ④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만들어졌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밑줄 친 ‘이 단체’는 민족혁명당(1935)이다.

- ① 민족혁명당이 창설된 시기 김구는 일본의 추격을 받고 도피 중이었기 때문에 김구가 이끌던 대한민국 임시 정부 계열 한국 독립당의 경우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의견이 분열되었다.
- ② 민족혁명당의 산하 부대는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아 창설된 조선 의용대였다. 한편 만주 공산주의 계열의 한인 항일 유격대와 중국 공산당 유격대가 결합하여 중국 공산당 계열의 정규군으로 조직된 동북인민혁명군(1933)은 1936년 이른바 ‘지안 사건’을 계기로 제2차 국공합작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당파·민족·계층을 망라한 항일 연합군의 성격을 갖는 동북 항일 연군으로 개편되었다.
- ③ 김원봉을 비롯한 의열단 세력은 공산주의 이념을 갖고 있었지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원을 받는 과정에서 이를 나타내지 않고 있었다. 점차 내부 갈등이 팽배해지던 가운데 김원봉이 조선 민족 혁명당의 전권을 장악하자, 조소앙과 박창세 등 민족주의 계열 인사들이 탈퇴하였다(1935. 9). 이후 지청천도 제명·탈퇴하였다(1937. 4).
- ④ 민족혁명당은 한국 대일 전선 통일 동맹에 참가한 단체를 중심으로 중국 관내와 만주 일대에서 활동하던 5개의 정당·단체(의열단, 한국 독립당, 신한 독립당, 조선 혁명당, 대한 독립당)가 참여하여 난징[南京, 중국 관내]에서 조직되었다(1935. 7). 한편 한국독립당, 한국국민당, 조선혁명당 3당의 통합으로 충청에서 ‘한국독립당’이 단일대당으로 창당되었다(1940. 5. 9).

문 18. ㉠에 해당하는 토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5월 을사에 태조가 예산진에 행차하여 이르기를, “너희 공경장상은 국록을 먹는 사람들이므로 내가 백성을 자식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헤아려서, 너희들 ㉠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야 할 것이다. 만약 무지한 가신들을 ㉡에 보낸다면, 오직 거두어들이는 데만 힘써 마음대로 약탈할 것이니 너희 또한 어찌 알 수 있겠는가?”라고 하였다.

- 『고려사』 -

- ① 신라의 토지 제도에서 비롯된 것이다.
- ② 직역에 대한 대가로 수조권만을 지급한 것이다.
- ③ 대상 토지에 거주하는 가호의 수를 단위로 지급되었다.
- ④ 지방호족들의 경제기반으로 고려 무신 정권기까지 존속했다.

정답 : ①

제시된 자료의 ㉠에 해당하는 토지는 녹읍이다.

- ① 녹읍은 신라에서 귀족 관인에게 관직에 따라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언제 처음 시행되었는지는 분명하지 않으나, 520년(신라 법흥왕 7년) 율령 반포를 전후한 시기에 제도로 정착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 ② 녹읍은 국가에서 관료 귀족에게 관직에 따라 지급한 일정 지역의 토지로서, 조세를 수취(수조권)할 뿐만 아니라, 토지에 딸린 노동력을 징발할 수 있었다. ③ 고려시대의 식읍에 대한 내용이다. 고려 시대에는 왕족과 공신들을 왕실의 번영(藩屏)으로 삼고 왕업을 융성케 하기 위해 식읍을 수여하였다. 이러한 식읍은 1정(丁)에서 3정으로 구성되는 과호(課戶)를 단위로 분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식읍의 크기는 자연히 봉호(封戶)의 수로 정해졌다고 이해된다. 신라 경순왕 김부의 경주 식읍 수여 내용을 살펴보면, 당시 김부는 “식읍 8천 호에 봉해지고 경주를 식읍으로 받았다”고 하는데, 여기서 김부가 받은 식읍은 봉호 8천 호였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경주라는 지역은 8천의 봉호가 거주하는 지역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김부의 식읍은 경주의 일부, 다시 말해 경주에 거주하는 인정(人丁)의 일부였다. ④ 녹읍은 고려 초까지 존속되다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이후 폐지되었다.

문 19. 밑줄 친 ‘시집’에 해당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위향인들은 인왕산, 삼청동, 창계천, 광교 등의 지역에 많은 시사를 결성하여 문학 활동을 벌이면서 자신들의 위상을 높여 갔다. 그리고 문학을 하는 능력에서는 신분의 귀천이 없음을 주장하면서 자신들의 시를 집성한 시집을 편찬하였다.

- ① 어우야담 ② 연조귀감
- ③ 호산외기 ④ 소대풍요

정답 : ④

④ 조선 후기에 중인, 상민, 천인 등이 문학 활동에 참여하면서 시인 동우회인 시사를 조직하였는데, 대표적인 시사로는 천수경 등의 옥계 시사, 최경흠 등의 직하 시사, 박윤묵 등의 서원 시사 등이 있었다. 이들 시사에서는 동인지로서 『소대풍요(昭代風謠)』, 『풍요속선(風謠續選)』 등의 시집을 간행하기도 하였다.

- ① 『어우야담』은 17세기 초 유몽인이 저술한 것으로, 시정 주변에서 떠돌던 이야기를 채록한 최초의 야담계 한문 소설이다. ② 『연조귀감』은 조선 정조 때 이진홍이 향리들의 사적(事蹟)을 집약·정리한 책이다. 이 책은 본래 향리 집안의 후손인 저자가 향리의 기원·형성과정 및 위업을 밝혀 향리와 양반이 처음에는 같은 신분이었음을 재인식시키고, 그에 상응하는 향리들의 신분상 지위 변화를 개진하려는 의도로 간행되었다. ③ 『호산외기』는 조선

후기 절충 대 조희룡이 불우한 위항인(불락 양반, 중인)의 행정을 기록한 것이다.

문 20. 다음 글의 저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국가의 역사는 민족의 소장성쇠(消長盛衰)의 상태를 서술할지라. 민족을 빼면 역사가 없으며 역사를 빼어 버리면 민족의 그 국가에 대한 관념이 크지 않을지니, 오히려 역사가의 책임이 그 역시 무거울진저 ... (중략) ... 만일 그렇지 않으면 이는 무정신의 역사이다. 무정신의 역사는 무정신의 민족을 낳으며, 무정신의 국가를 만들 것이니 어찌 두렵지 아니하리오.

- ① 이순신, 을지문덕 등 위인의 전기를 써 민족의식을 고취하였다.
- ② 한국의 독립운동 과정을 서술한 『한국독립운동지혈사』를 저술하였다.
- ③ ‘5천년간 조선의 얼’이라는 글을 신문에 연재하여 민족정신을 고취하였다.
- ④ ‘조선심’을 강조하며 정약용 연구를 중심으로 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다.

정답 : ①

제시된 사료는 신채호의 『독사신문』이다.

- ① 신채호는 대한매일신보에 ‘조선제일위인 이순신전’을 연재하였으며, 을지문덕과 최영 등의 전기물을 썼다.
- ② 박은식은 『한국통사』(1915)와 『한국독립운동지혈사』(1920)를 저술하여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사를 정리하고 일제의 불법적인 침략을 규탄하였다. ③ 정인보에 대한 설명이다. ‘5,000년간 조선의 얼’은 정인보의 저서로서, 이 책에서 그는 조선 역사 연구의 근본을 ‘단군 이래 5,000년간 면면히 흘러 온 얼’에서 찾고 조선 역사는 곧 한민족의 ‘얼의 역사’임을 강조하였다. ④ 문일평에 대한 설명이다. 문일평은 정인보, 안재홍 등과 함께 『여유당전서』의 간행을 계기로 조선학 운동을 전개하였고, 민족 문화의 근본으로 세종을 대표자로 하는 ‘조선심’ 또는 ‘조선 사상’을 강조하였다.